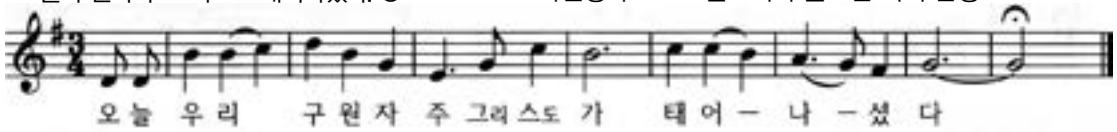
필라델피아 한인천주교회

Holy Angels Parish of Archdiocese of Philadelphia
www.philaholyangels.org

7000 Old York Road, Philadelphia, PA 19126 • 사무실 (215) 927-1662 • FAX (215) 224-6615
주임 신부 : 김순진(요셉) • 보좌 신부 : 주국돈(마르티노)
사목회장 : 김도호(시메온) 267-992-5462 • 연령회장 : 김항규(안드레아) 201-874-44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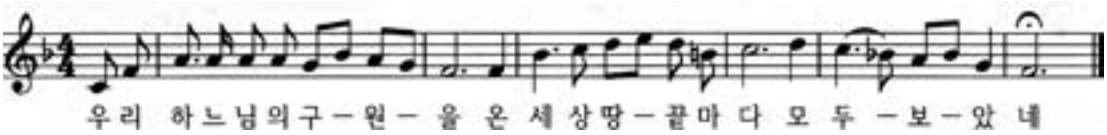
주님 성탄 대축일 밤미사

입당 성가 : 99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제 1독서 : 이사야서 9,1-6
화 답 송 : 오늘 우리 구원자 주 그리스도 태어나셨다.
제 2독서 : 티토서 2,11-14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구원자 주 그리스도 태어나셨다. ⊙
복 음 : 루카 2,1-14
봉헌성가 : 102 어서 가 경배하세
103 오늘 아기 예수
영성체송 : 말씀이 사람이 되셨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네.
성체성가 : 107 천사의 찬송 105 사랑의 아기 예수
100 동방의 별
파견성가 : 101글로리아 높으신 이의 탄생



주님 성탄 대축일 낮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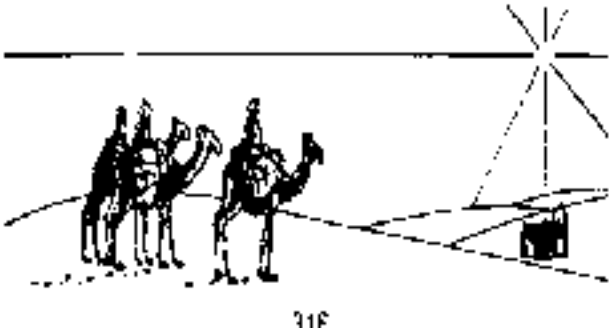
입당 성가 : 101 글로리아 높으신 이의 탄생
제 1독서 : 이사야서 52,7-10
화 답 송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제 2독서 : 히브리서 1,1-6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거룩한 날이 우리에게 밝았네. 민족들아, 어서 와
주님을 경배하여라. 오늘 큰 빛이 땅 위에 내린다. ⊙
복 음 : 요한 1,1-18
봉헌성가 : 103 오늘 아기 예수 100 동방의 별
영성체송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성체성가 : 102 어서 가 경배하세
105 사랑의 아기 예수
파견성가 : 107 천사의 찬송



미사 지향

		지향자	봉헌자	지향내용
밤미사	연	연옥 영혼들		영원한 안식
		낙태된 아이들의 영혼들		
		강상설 이용덕 강영일 강기섭 강베드로 강미카엘라 이찬식(스테파노) 김옥금(세실리아) 조영우(브르노) 정귀자(아가다) 홍길자(루시아) 신영희(안젤라)		
	생	죄준용(요셉) 박정화(제시카) 가정	가족	주님 축복 건강

		지향자	봉헌자	지향내용
10시	연	이장형(요아킴)	김근회	영원한 안식
		정행준, 정신해 정세해, 정행용	김미해	
	생	최천웅(안토니오) 서춘자(율리안나)	가족	주님 자비 은총 축복
		조길훈(미카엘) 가정 조현진(안젤라)	로사	
		강성수(로마노) 강명숙(예레미아) 가정		
		김근회(베드로)가정	김미해	주님은총에 감사



축
성 탄

세상에 참 생명의 빛과 희망으로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새해에도 주님의 평화와 축복이 교우 여러분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임 신부 : 김순진 요셉
보좌 신부 : 주국돈 마르티노
사목 회장 : 김도호 시메온

2023년 성탄 메세지

우리 안의 선함을 이끌어내시고자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동방 박사들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마태 2,11)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의 거룩한 탄생을 함께 기뻐하며 축하드립니다. 성탄의 기쁨이 온 누리에 가득하기를, 특별히 전쟁으로 죽음의 공포와 위협 속에 놓여 있는 나라의 국민들과 북녘의 동포들을 포함하여, 가난하고 소외된 분들과 위로가 필요한 우리 사회의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큰 희망과 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전능하신 하느님의 아들로서 위엄 가득한 다른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었을 텐데,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갓난아기는 인간 존재 중에서도 가장 연약하고 힘없는 존재입니다. 어머니의 도움 없이는, 주변의 도움과 사랑 없이는 성장할 수 없고, 존속할 수도 없는 약하디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아드님,만왕의 임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기들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비록 자기 가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아기를 보는 이들의 마음을 선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엄마의 품 안에 안겨 있는 아기가 우리를 향해 방긋 웃어주면, 보는 이는 누구라도 '무장이 해제되고' 각자의 마음 안에 원래부터 있던, —그러나 많은 경우 바쁜 삶을 사는 중에 잃어버리고 지내왔던— '선함이 눈을 뜨게' 됩니다. 아기들은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이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선함을 이끌어 내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장 연약한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심은 우리 안에 원래부터 내재해 있던 선함을 이끌어내시고자 함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 안에는 여러 모습으로 힘없고, 가난하고, 소외된 분들이 계십니다.아기 예수님이 우리 안의 선함을 이끌어내시고자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듯이,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도움과 사랑을 이끌어내시기를 바라시며, 힘없고 가난하고 소외된 분들 그 안에 현존하고 계십니다. 누구나 건강하고 멋진 삶을 누리고 싶어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누군가는 질병이라는 십자가를, 또는 가난이라는 십자가를, 혹은 다른 여러 형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 갑니다. 그들은 우리 모두 안에 있는 선함을 일깨우면서,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고 계시는 아기 예수님의 몫을 살고 계십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시노드 교회'란 다 함께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 곧 삶의 여정에서, 하느님과 깊은 친교를 바탕으로 이웃들과 친교를 이루고, 하느님의 사랑을증거하고 선포하는 선교하는 교회를 살며, 거기에 우리가 모두 주인공으로 참여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시노드 교회를 위하여 함께 걸어가면서, 특별히 힘없고 가난하고 소외된 분들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하느님께서 심어주신 우리 안의 선함을 이끌어내시고자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어봅시다.

성모님의 전구 속에, 우리 사회의 힘없고 가난하고 소외된 분들이 친교의 공동체, 선교하는 공동체, 모두가 주인공으로 참여하는 공동체의 한 주역으로서, 복음을 듣고 나아가 복음을선포하는 주인공이 되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배려하고 존중하는 교회를,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의 축복이 늘 풍성한 한 해 되시길 기도합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 평양교구장 서리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